

모조품 ☹

많은 관광객들이 아테네 시 언덕 위에 있는 유명한 고대의 신전 아크로폴리스 성채를 방문합니다.

세계 각국으로부터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에 와서 대리석 조각을 기념으로 주워가곤 하는데, 이상한 것은 그 대리석 조각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몇 달에 한번씩 한 트럭분의 대리석 조각들이 수마일 떨어진 채석장으로부터 실려 와서 아크로폴리스 전역에 뿌려지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은 그것을 고대 역사의 진짜 조각이라고 믿으면서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언어나 음악, 또 물건들을 통해서 혹은 예배의식이나, 공허한 행사들을 치르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 성전에 드나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사1:1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한 의식들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믿음이 아니라 그것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진실과 사랑으로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기독교신문사 출판기획부 엮음>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